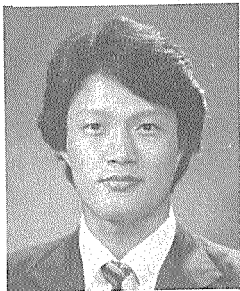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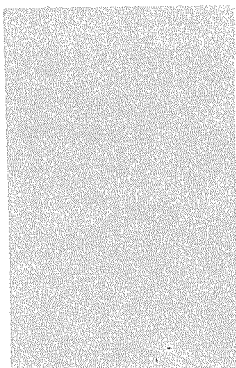
-통신강좌 수강생 입장에서-

香報와 結實의 祈願



교번 042 鄭 三 塚

RI 일반면허시험이 이들 네권의
통신講座 教材속에서 출제되어지기를
희망하며 또 이 教材속에서 충분한
연습문제들을 출제하여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하고 싶으며.....



1986년 12월 20일 직장의 친구들과 망년회 모임을 갖는 그날, 나에게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실마리가 향긋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放射性同位元素, 放射線 利用産業, 그리고 生命科學에 도전하고픈 생각이 뇌리를 친 것이었다. 香報였다. 문을 두드리었던 것이 었다. 술이 취하지 않았다. 긴장과 영롱한 엑스선이 혈관을 준열시켰기 때문이다. 다음날 通信講座 수강 신청 지망원서를 써서 보냈다. 우리 회사는 오래전 부터 유전공학과 試藥을 개발하여 왔기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인력 양성에는 보조금을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당장 수강료를 결제하여 주셨다. 나 이외에도 세사람이 더 신청하였다. 네사람이 네과목을 맡은 것이다.

금년 1월 27일에 정성을 담은듯한 두툽한 청색 화일 5권과 그 속에 철한 교재들, 그리고 문제집이 안경속의 童眼을 가느스름하게 위축시켜 나갔다. 原子力基礎理論. 放射線取扱技術基礎. 放射線障害防禦基礎. 關係法令., 이들은 제목이 기초이지 내용은 기초가 아니었다. 아니 기초가 될 수 없는 학문들이었다. 큐리와 아인슈타인 이론의 범주와 I. C. R. P의 이론과 실제에 속하는 것이었다. 두번을 정독한후 답안지를 꾸미려하였으나,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다른 세사람도 같은 實狀이었다. “뭐가 이리 어렵노” 불유쾌한 불평의 욱지거리가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네사람은 네과목중 한 과목씩 답안지를 푸는데 전담강사가 되자고 分任을 하게 되었다. 분임 과목에 대해서는 아마 다섯번이상 읽으면서 수없이 중점을 취압한후 답안지를 구성하기 시작 하였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읽고 또 즐기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모처럼 사랑하

는 부모형제를 만나러 본가에 다녀와야 하는 休日도 반납한채 공부에 열중하였다.

2월 27일 제 2회 교재와 문제집, 그리고 제 1회 답안지 채점내용과 해답집이 도착했다. 평균 70점은 얻어낸 셈이다. 그런데 한가지 채점관이 너그럽게 채점한 증표가 보였다. 그것은 빛의 길이를 “크통”으로 표현한 나의 답안지를, “A”로 고쳐주고 맞은 것으로 채점해 주었기 때문이다. 해답집을 펴놓고 내가 작성했던 답안지를 비교하면서 다시 자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제 2회의 강좌앞에 앉아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목들이 전광석처럼 총망라되면서, 30여 문제의 정답이 엑스선에 비치듯이 밝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듯 하다.

앞으로 7회에 걸친 강좌와 韓國에너지研究所 原子力研修院에서의 3일간의 실습교육, 그리고 종합시험을 거쳐 평균 50점 이상을 얻을경우 통신강좌를 修了(졸업)하게 된다.

그 다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이것은 결실을 향한 정작이며, 방사선 이용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여 생명 科學을 일구어 보겠다는 집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고시인 면허시험에 합격을 기대하기란 그렇게 쉬운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과연 강좌를 통하여 9번의 연습문제를 총 “마스터”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에 나의 고민

이 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RI분야에 보다 많은 기회를 얻게 되겠는데 그 기회를 확보하는 朗報를 얻기에는 아직도 먼 감이 감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소중한 긴장때문에 集操와 분기의 욕망이 숨막히게 솟구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 그것은 보다 많은 참고자료들을 얻어야 하겠다는 간절한 숨소리이다. 그렇다, 나에게서는 原子力法令集도 없고 RADIOISOTOPES에 關한 參考書誌도 전혀 없다. 다만 이들 네권의 통신강좌만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 한가닥 기대하는 것은 「RI일반면허시험이 이들 네권의 通信講座 教材속에서 출제되어 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통신강좌교재속에서 충분한 연습문제들을 출제하여 풍량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하고 싶으며, 아울러 실습교육과 요점 강의를 하여 줄것을 당부하려 한다.

특히 통신강좌에 그치지 말고 RI일반면허 합격 후에 충분한 학습의 보급과, 나아가서 RI분야의 의약적,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昇華시켜 나아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연습문제가 너무 어려워 풀리지 않을때에는 이강좌를 포기하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끊임 없는 어려운 질문에 성의껏 친근감있게 응답하여 주는 협회 직원의 다정한 격려에 힘입어 재기의 분발을 움트리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産學協同의 통신강좌에 기대를 모아 본다.

독자 투고를 바랍니다.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독자의 의견이나 ^{기밀}정보, 국내소식, 해외소식 등 동산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원소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려를 지불해 드립니다.

*원고 : 200字 원고 8매 (1 page分), 16매 (2 page分)

*보내주신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음.